

전라도 소재 박물관의 服飾遺物 현황 연구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lothing Remains in the Museums of the Jeollado Region

홍정화·임상임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Hong, Jeong Hwa · Im, Sang Im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clothing remains in the museums located in Jeolla Province and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exhibitions, management and safekeeping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costume studies whi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ur inherent clothing culture.

The method of this study included classification of the clothing remains of the thirteen museums in Jeolla Province according to the system 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research data was analyzed by using chart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

The total of 8696 clothing remains were inspected, and these were consisted of 78% ornaments, 9.4% clothings, 5.4% hats, 4.4% shoes, 1.8% belts and buckles, 1.0% boxes for hats and clothes.

Key words : ornaments, clothings, hats, shoes, belts and buckles, boxes for hats and clothes

I. 서론

1. 연구목적

국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화재 중에서 복식유물(服飾遺物)은 중요한 민속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복식유물은 과거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문화 유산의 한 분야로서 복식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복식유물이 문화재로서 지니는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재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뒤늦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자료로서의 잠재력 또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식은 유기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유물에 비하여 실존하는 유물이 현저히 적으며, 그 보관과 관리 또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한된 몇몇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주제 복식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복식유물을 문화재로서 인식하는 비중이 작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도에 위치한 박물관의 복식유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복식유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의

Corresponig author : Hong, Jeong-Hwa
Tel : (063) 850-6644, Fax. (063) 850-7301
E-mail : fashion99@orgio.net

고유한 복식문화를 홍보하고 새롭게 재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부(1997)¹⁾에 등록된 9개소 박물관과 13개소 대학 박물관, 총 22개소 박물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중에서 복식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3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다.<표1 참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복식유물이 소장되어 있

는 곳으로 조사된 13개소의 박물관을 2000년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시관 및 수장고를 견학하고 학예연구사나 박물관장 및 기타 관리자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산화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복식유물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였는데 분류에 이용된 자료 수는 총 8696점이다. 대분류는 관모(冠帽), 의류(衣類), 대·구(帶·鉤), 신발, 장신구(裝身具), 관·복함(冠·服函)의 6개 범주로 하고, 대분류는 다시 관모는 관(冠), 립(笠), 건(巾), 모(帽), 관식(冠飾), 립식(笠飾),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대·구는 대(帶), 구(鉤),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신발은 화(靴), 혜·이(鞋·

<표 1> 전라도 소재 박물관과 복식유물 소장 유무

구 분	박물관 명	소재	복식유물 소장		비 고	
			유	무		
전라북도	국립	전주박물관	전주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	○		
	시립	동진수리민속박물관	김제	○		
		한솔종이박물관	전주		○	연구대상제외
	대학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	○		
		우석대학교박물관	삼례		○	연구대상제외
		원광대학교박물관	익산	○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	○		
		전주대학교박물관	전주	○		
	전주교육대학박물관	전주	○			
소계	10개소		8	2		
전라남도	국립	광주박물관	광주	○		
		해양유물전시관	목포		○	연구대상제외
	도립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영암		○	연구대상제외
	시립	광주민속박물관	광주	○		
		나주배박물관	나주		○	연구대상제외
	대학	광주교육대학박물관	광주	○		
		동신대학교영상박물관	광주		○	연구대상제외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		○	연구대상제외
		순천대학교박물관	순천	○		
		전남대학교박물관	광주	○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		○	연구대상제외
호남대학교박물관	광주		○	연구대상제외		
소계	12개소		5	7		
합 계	22개소		13	9		

1)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문화공간, pp. 125~142.

履),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장신구는 신체장식, 의복장식,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관·복합은 관·복합(冠·服函)과 기타 등 2개 항목의 종속(種屬) 범주로 증분류 하였으며, 증분류는 다시 유물 명칭별로 소분류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조사해야 했으나 한정된 시간과 박물관 자체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소장품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 양과 작업량이 너무 많아 전시실에 전시된 유물을 제외한 소장품은 박물관에 비치된 유물대장을 통해서 복식유물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박물관마다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아 유물대장에 기입하지 못한 유물들도 상당량 있으리라 사료되며, 유물대장에서 누락된 유물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복식유물 중에서 다른 항목과는 달리 의류를 명칭정도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산화 분류기준에 의한 항목별 분류가 매우 어려워 그 현황을 총괄적인 양만으로 나타내었다. 추후 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기준을 이용한 의류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는 원래 독일어인 "kulturgüter"를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²⁾로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소산들"로서 문화재는 우리 민족(광의로는 인류)이 이룩한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所産)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

치가 있는 문화유산(文化遺産)과 자연유산(自然遺産)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identity)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³⁾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제 2 조에 의하면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Tangible Cultural Property),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기념물(記念物, Monument), 민속자료(Folklore Material)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 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특히 더 높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기도 하는데, 명칭을 살펴보면 유형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하면 보물(寶物, Treasures)이라 하고 이를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類例)가 드문 것을 다시 국보(國寶, National Treasures)로 지정한다. 그리고 시·도에서 지정하면 시·도유형문화재라 한다. 무형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하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라 하고, 시·도에서 지정하면 시·도무형문화재라 한다.⁴⁾ 무형문화재 기여능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 부르기도 한다.⁵⁾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하면 사적(Historical Sites), 명승(Scenic Places),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이라 부른다. 이것을 시·도에서 지정하면 시·도기념물이라 한다.⁶⁾ 민속자료를 국가에서 지정하면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Important folk-lore materials)라 하고 시·도에서 지정하는 것을 시·도민속자료라 한다.⁷⁾ 국가 지정이나 시·도 지정이 아닌 일반문화재는 '비지정 문화재'라고 한다.

이 중에서 복식은 민속자료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2) 한글학회(1995), 우리말 큰사전, p. 1508.

3) 문화재 관리국(1998), 문화재 명에 관한 전국대회, p. 7.

4) 문화재보호법 제 2 조, 제 4 조.

5) 문화재보호법 제 5 조.

6) 문화재보호법 제 6 조.

7) 문화재보호법 제 7 조.

것들을 의미한다.

Ⅲ. 현황조사 결과 분석

2.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2001년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 2844점, 시도지정 문화재 4073점, 문화재 자료 1809점으로 총 8726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복식문화재는 민속자료의 범주에 속하는데 그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로써의 중요민속자료가 239점, 시도지정 문화재로써의 민속자료가 301점으로 총 540점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 중에서 복식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된 13개소를 중심으로 복식유물의 현황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산화 분류기준을 토대로 관모,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합의 6개 대분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8696점의 복식유물을 조사하였고, <표 3>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표 3>은 전라도 지역의 복식유물 현황으로 각 유물별 소장현황과 6개 대분류 항목의 항목별 비율 및 전체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장신구가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총 6784점으로 78%를 차지하여 소장 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표 2>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현황

(2001년 8월 3일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해제	총계
국 보	121	3	3	1	2	0	2	41	8	10	27	7	17	52	9	0	0	303	1	304
보 물	361	13	24	21	7	1	5	147	51	47	85	88	105	249	90	2	0	1296	15	1311
사 적	62	4	4	17	2	1	4	53	8	16	38	31	34	94	44	5	0	417	13	430
사적 및 명승	0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9	0	9
명 승	0	0	0	1	0	0	0	0	1	0	0	0	3	1	1	0	0	7	2	9
천연기념물	11	7	1	10	0	0	2	13	27	23	14	26	44	57	34	29	30	328	100	428
중요무형문화재	35	3	0	4	1	0	0	6	1	2	4	2	12	6	11	4	16	107	7	114
보 유 자	59	12	1	12	4	0	0	19	6	3	10	9	19	10	25	5	0	194	134	328
중요민속자료	46	0	4	0	3	0	1	8	11	21	20	13	32	58	11	7	0	235	4	239
소 계	636	30	36	54	15	2	14	268	107	120	189	167	250	520	201	47	46	2702	142	2844
시 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125	45	41	35	26	28	11	134	118	179	129	172	210	282	326	16	0	1877	136	2013
무형문화재	24	9	14	8	13	10	1	31	8	8	30	21	24	25	18	11	0	255	31	286
기념물	17	42	11	47	26	38	37	148	76	95	140	97	153	123	211	52	0	1313	160	1473
민속자료	28	1	4	2	7	2	0	9	4	10	13	33	31	117	20	8	0	289	12	301
소 계	194	97	70	92	72	78	49	322	206	292	312	322	418	547	575	87	0	3733	340	4073
문화재자료	9	7	33	17	25	41	17	94	107	29	285	141	176	393	283	1	0	1658	151	1809
합 계	839	134	139	163	112	121	80	684	420	441	786	630	844	1460	1059	135	46	8093	633	8726

* 총계는 해제자료를 포함한 건수임

8) 문화재 관리청 홈페이지(<http://www.ocp.go.kr>) 참조.

(표 3) 복식유물의 현황

박물관명	대	관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합		합								
		관	립	건	모	편식	립식			기타	소계	화	혜	기타	소계	신체	의복		기타	소계	복합	기타	소계			
전라북도 대학	전주박물관				5			5							2		2	123		255	378			385		
	국립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1	8	3	1										2		2	7		25	35			59		
	충진수리 민속박물관	3	2	3	3										8		10	3		8	8			34		
	군산대학교 박물관	4	7		5	7									18		18	27		32	59			1	112	
	원광대학교 박물관	24	75	20	37										82		90	110		81	1	192	45		786	
	전북대학교 박물관	14	12	15	17	5	3	1	67	145	145	5	4	5	2	40	42	108		67	175	15		449		
	전주대학교 박물관	9	7	9	8		2								53		64	37		22	59			8	277	
	전주교육대 박물관	7	8	6	10	1			32	12	12	10	10		47		47	29		23	2	54	3		158	
	합	62	119	56	81	18	5	1	342	530	530	69	6	4	79	23	252	275	444	233	283	960	74		2260	
전라남도 대학	국립							1										99		5450	5555			5590		
	시립																									
	광주민속 박물관	7	15	7	16	6	5	1	57	230	230	15			4		32	2	38	62	27	1	90	7	437	
	순천대학교 박물관	7	3	5	11		1		27	35	35	5			4		12	16	39	34			73	2	158	
	전남대학교 박물관	8	9	5	10	2	4		38	14	14	19	2		4		26	30	74	16	9	99	5		207	
	광주교육대 박물관	1	3		1				5	8	8	1			4		16	20	3	4		7	3		44	
	합	23	30	17	38	9	10	1	128	287	287	40	36		16		86	2	104	277	87	5460	5824	17	6436	
	항목별 비율 (%)	85	149	73	119	27	15	2	470	817	817	109	42	4	155	39	338	2	379	721	320	5743	6784	91	8696	
	전체비율 (%)	18.1	31.7	15.5	25.3	5.8	3.2	0.4	100	100	100	70.3	27.1	2.6	100	10.3	89.2	0.5	100	10.6	4.7	84.7	100		100	
					5.4 %					9.4 %		1.8 %				4.4 %				78 %						1.0 %

났고, 이어서 의류가 817점으로 9.4%, 관모가 470점으로 5.4%, 신발이 379점으로 4.4%, 대·구가 155점으로 1.8%, 마지막으로 관·복합이 91점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전라도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대다수가 장신구이며 의류나 관모 등 기타 항목의 유물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박물관 별로 복식유물 소장 양을 살펴보면,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총 786점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총 5590점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식유물의 대분류 항목별 순서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모(冠帽)

관모는 470점으로 조사된 복식유물 중에서 5.4%를 차지하고 6개의 대분류항목 중 세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들 유물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7개 중분류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립으로 총 149점으로 전체 관모 중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119점 전라남도에 30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립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났던 관모로 우리 나라 관모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천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왕조에 와서 립제(笠制)가 확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유물은 흑립(黑笠)인데, 이것은 조선초기에는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조선후기로 가면서 귀천의 차별 없이 폭넓게 사용되었던 바 그 유물 또한 가장 많이 보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높은 비율로 나타난 항목은 모로 총 119점이 조사되었는데 전체 관모중에서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81점, 전라남도에 38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는 남박위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방한모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용하였으며 상류층 남녀가 쓰다가 그 착용범위가 넓어져 서민층에까지

도 썼던 것으로써 그 유물 또한 상당량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관, 건, 관식, 립식, 기타의 순으로 유물들이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양의 관모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는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전라남도는 광주민속박물관으로 조사되었다.

2. 의류(衣類)

의류는 817점으로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9.4%를 차지하고 6개의 대분류항목 중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산화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의류를 크게 궁중복(宮中服), 관복(官服), 반가복(班家服), 서민복(庶民服), 종교복(宗教服), 의례복(儀禮服), 기타복(其他服), 본(本), 기타의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박물관에서는 의류를 명칭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전시관과 유물대장을 보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류를 위에서 말한 9가지 항목으로 정확히 분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학예연구관이나 박물관장 및 기타 박물관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자의 부재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의류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기준과 관계없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류하려고 하였으나, 그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여 세분화하지 못하고 총괄적인 수량만을 나타내었다. <표 3 참조>

가장 많은 의류를 소장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총 265점으로 전체 의류 중 32.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그렇듯이 이곳 박물관도 정확하게 유물의 시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매우 다양한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특히 이곳 박물관에서는 무복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조복(朝服) 및 국상복(國喪服) 등의 관복에서 남녀 혼례복과 일상복(一相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광주민속박물관이 230점으로 전체 의류 중 2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유물들이 치마,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등의 일상복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곳은 비교적 타박물관

<표 4> 관모(冠帽)의 현황

구분	소재	관										삼										관모										모										관외										관외										합계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관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관외											
전통	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현대	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삼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관외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모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관외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합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에 비하여 유물명칭 및 시대구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민속박물관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상당량의 유물이 조사되었으며 그 이하 박물관에서도 다소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구(帶·鉤)

대·구는 155점으로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1.8%를 차지하고 6개의 대분류 항목 중 다섯 번째로 조사되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물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가 총 109점으로 70.3%, 구는 42점으로 27.1%를, 기타는 4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는 도포끈과 요대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는데 도포끈은 광주민속박물관에 7점, 요대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18점이 조사되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발굴유물들로 그 양이 비교적 소수이나 삼국시대에서 백제에 이르는 오래된 유물들이었다.

4. 신발

신발은 379점으로 전체 복식유물 중 4.5%를 차지하고 6개의 대분류항목 중 네 번째로 조사되었다.

신발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화는 39점으로 10.3%를 차지하고,혜·이는 338점으로 89.2%를 차지하며, 기타가 2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다.

신발은 각 박물관마다 고르게 소장하고 있었지만, 그 수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신발은 그 수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박물관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직접보지 못하고 유물대장만으로 파악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물대장에 특별히 외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종류를 2점으로 파악하였다.

조사된 신발 중에서 혜·이가 89.2%로 신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혜·이는 신의 총칭으로 일반적인 신발을 의미하는 것들로 신 목이 짧

(표 5) 대·구(帶·鉤)의 현황

박물관 명	대 중 소	대·구														합계			
		대							구				기타						
		과대	요대	요패	관대	포백대	도포끈	기타	소계	대구	교구	기타	소계	기타	소계				
전라북도	국립 전주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		2						3					4	4	7	
	시립 동진수리민속박물관				1						1							1	
	대학	군산대학교박물관							2			2							2
		원광대학교박물관		18	2	3			6	5	34		4		4				38
		전북대학교박물관							5		5								5
		전주대학교박물관				3			4	7	14	2			2				16
전주교육대학박물관				4			6		10								10		
소계		19	2	13			23	12	69	2	4		6	4	4		79		
전라남도	국립 광주박물관												34	34				34	
	시립 광주민속박물관		6		1			7	1	15								15	
	대학	순천대학교박물관		1					2	2	5								5
		전남대학교박물관		8		5			5	1	19	1	1		1				21
		광주교육대학박물관				1					1								1
소계		15		7			14	4	40	1	1	34	36				76		
합계		34	2	20			37	16	109	3	5	34	42	4	4		155		
소계비율(%)							70.3 %					27.1 %		2.6 %			100 %		
전체비율(%)									1.8 %										

<표 6> 신라의 현황

박물관 명	종 소	화								신								기타			합계											
		목회	백목회	제화	등구	기타	소계	국피예	당해	수예	문예	태시예	유예	초예	발민신	장신	니미신	실피	미투리	구두		기타	소계	고무신	운동화	기타	소계					
				나신																												
전라북도 대학	전주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동진수리민속박물관		2					2																								
	군신대학교박물관						4		8		6																					
	원광대학교박물관		4				4		8		6																					
	진북대학교박물관		2					2																								
	전주대학교박물관		11					11			4																					
	전주교유재박물관												8																			
	소 계						4		23		10		8		16		6		16		2		28		43		2		28		93	252
	광주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4					4			6																					
	순천대학교박물관		4						4																							
전남대학교박물관		4						4																								
광주교육대학교박물관		4						4																								
소 계								16		6																						
합 계							4	39		10		8		16		12		16		2		34		65		6		40		131	338	
소계비율(%)		10.3 %																														
전제비율(%)		89.2 %																														
기타		4.4 %																														
합계		0.5 %																														
소계비율(%)		100 %																														

〈표 7〉 장신구의 현황

박물관 명	대	장 신 구										기타	합계																											
		신체장식					의복장식																																	
	중	소	두식영식	이식	원형지흔	천	족사기	체	합	계	·	안경광	가	침	지	털	집	뒤	꽂	이	동	곳	기	타	소	계	기	타	소	계										
전국 복도	대학	전주박물관	111	8	1						1	2	123																			255	255	378						
		미복사지																																						
		유물전시관			2						1									2	2		7				3					3	25	25	35					
		동진수리																																	8					
		민속박물관									1																									5				
		군신대학교																																				32		
		박물관																																				59		
		원광대학교																																					192	
		박물관																																					175	
		전북대학교																																					22	
		박물관																																					54	
		전주교육대학																																					23	
		박물관																																					22	
		전주교육대학																																						23
		박물관																																						22
박물관																																						22		
소	계	26	112	10	45	6	1	50	71	5	29			37	48	5	444	17	39	45					233	283	283								960					
국립	광주박물관		80	13		4								1	1		99		6						6	5450	5450								5555					
시립	박물관				8									2	7		62	1	8	5					27		1	1						90						
	순천대학교																																			73				
	박물관				15																																99			
	전남대학교																																				99			
	박물관				7	2																															16			
	광주교육																																				4			
	대학박물관																																				7			
	소	계	87	15	33	6		19	58	5	18			14	22		277	6	31	10					87	5460	5460								5824					
	합	계	25	199	25	78	12	1	69	129	10	47		51	70	5	721	23	70	55					320	5743	5743								6784					
	소계비율(%)									10.6 %																										84.7 %				
	전체비율(%)																																			100 %				

거나 없기 때문에 남방계의 신으로써 이곳 전라도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볼 때 북방계에서 많이 신는 화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타가 1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혜·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유물 명칭상의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유물들이 기타로 포함된 결과로써, 추후 정확한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는 나막신, 미투리, 징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는 10.3%로 그 유물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대부분이 목화로 조사되었다. 목화는 조선시대에 왕과 문무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신었던 신으로 상류계급에서 착용되던 것이었으나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혼례는 가장 경사스럽게 여겨 혼례당일만은 일반 서민들도 궁중예복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해 신랑의 경우 관복에 목화를 신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상류층에서부터 일반서민에게까지 착용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물 또한 대다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양의 신발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는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전라남도도는 광주민속박물관으로 조사되었다.

5. 장신구(裝身具)

장신구는 6784점으로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78%를 차지하며 6개의 대분류항목 중 가장 소장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신체장식이나 의복장식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되는 유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타의 장신구가 5743점으로 84.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유물들이며 대부분이 유리옥, 소옥, 관옥, 구슬 등의 발골유물들로 신체장식이나 의복장식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것들이어서 기타로 포함되어진 유물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명칭상의 분류기준이 요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신체장식이 721점으로 10.6%, 의복장식이 320점으로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물은 경식(頸飾)과 계·차(笄·釵)였으며, 의복장식에서는 노리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양의 장신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전라북도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전라남도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두 박물관에서 조사된 유물들 또한 발굴유물들로 기타 장신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6. 관·복합(冠·服函)

관·복합은 91점으로 전체 복식유물 중에서 1.0%를 차지하며 6개의 대분류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물의 현황을 보면 <표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관·복합은 갖집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전라북도에 46점, 전라남도도에 11점으로 총 57점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관·복합 중에서 6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관모에서 흑립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그 보관함 또한 많이 보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많은 양의 관·복합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는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전라남도도 광주민속박물관으로 조사되었다.

IV. 복식유물 관리현황의 문제점

복식은 당시 사회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특히 그 재질면에서 유기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관과 관리가 다른 유물에 비해 어렵다.⁹⁾ 그러므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나, 박물관마다 관리가 소홀하여 유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9) 윤은재(1994), 해외에 소장된 우리 나라 복식의 현황 연구 I, 복식 23호, p. 92.

(표 8) 관·복합(冠·服函)의 현황

박물관 명	대 중 소	관·복합					합계	
		관합			복합 의합	기타		소계
		망건릉	갓집	탕건릉				
전라북도	국립	전주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시립	동진수리민속박물관		1		1	2	2
	대학	군산대학교박물관		1			1	1
		원광대학교박물관	3	29	10	2	45	45
		전북대학교박물관	3	10		2	15	15
		전주대학교박물관	1	3	1	2	8	8
	전주교육대학박물관	1	2			3	3	
소 계		8	46	11	7	74	74	
전라남도	국립	광주박물관						
	시립	광주민속박물관		4		3	7	7
	대학	순천대학교박물관		1	1		2	2
		전남대학교박물관		4	1		5	5
		광주교육대학박물관		2		1	3	3
소 계			11	2	4	17	17	
합 계		8	57	13	11	91	91	
전체비율(%)						1.0 %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박물관의 복식유물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의 유물들 중에서 상당수가 시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박물관 자체에서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박물관에 복식관련 전문요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많은 유물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박물관은 아직 전시관조차도 없거나, 수장고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유물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되어져 있는 유물 명패(show card)들이 객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유물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박물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어떤 것들은 유물명, 영문명, 시대구분, 출처, 입수경위, 유물설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명칭조차도 없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유물 명패와

유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물의 착장 상태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박물관의 수집된 자료들이 일반인들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표기가 불확실하여 관람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혼란함을 주게 된다.

셋째, 복식관련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복식유물 관리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문요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속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유물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자금이 부족하여 박물관의 재정이 궁핍하다는 것이다. 최덕항¹⁰⁾은 복식면에서 토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묘의 이장공사를 통해 많은 양의 복식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문화재의 발굴이나 지정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할 뿐 과학적인 보존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10) 최덕항(1993),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 26, pp. 302~303.

거의 미비한 실정이므로 더 많은 기술 개발과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복식유물 연구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도에 위치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유물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전라도 소재 박물관 복식유물의 현황은,

- ① 전체 8696점의 복식유물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장신구가 6784점(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전라남도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들 국립박물관의 유물들은 대부분 발굴유물들로 유물현황 파악에 있어서 모호한 것들이 많았으므로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분류기준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 ②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의류로 817점(9.4%)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분류기준에 의한 분류가 어려워 총괄적인 수량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의류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의 의류를 소장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무복이 많이 나타났는데, 관복(조복 및 국상복 등) 및 혼례복과 일상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었다.
- ③ 세 번째로는 관모로 470점(5.4%)이 조사되었으며, 네 번째는 신발로 379점(4.4%)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전라남도에서는 광주민속박물관이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다.
- ④ 대·구는 155점(1.8%)으로 전체 유물 중에서 그 소장 양이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전라남도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다.

- 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관·복함은 91점(1.0%)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교박물관이 전라남도에서는 광주민속박물관이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다.

전라도 소재 박물관의 문제점은,

- ① 박물관의 유물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소홀하며 유물들 중 대부분이 시대를 알 수 없었으며 박물관 자체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② 박물관 전시실의 유물명패(show card)들이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복의 잘못된 착장 상태로 인해 일반인들이나 전문인들이 유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③ 박물관에 복식 전문요원이 없고,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유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④ 박물관의 재정이 매우 미약하여 관리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박물관에서는 유물명패의 통일화 및 유물들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몇몇 박물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유물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박물관에서는 박물관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위해서 복식 전문요원을 보강하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박물관이 소장자료를 엽서, 슬라이드 자료 등으로 제공하거나 박물관 내에서 조사 연구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적 소유권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박물관에서는 대중에게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

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이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관모,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합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박물관(1996).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 분류 표준화.
-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 _____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 문화재 관리국(1998). 문화재 명예 관리인 전국 대회.
- 문화재청(2000). 문화재 수리기술 교육.
-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문화공간.
- 박성실(1992). 조선시대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 박종옥(1994). 복식유물 보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경춘사.
- 안명숙·김용서(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 안춘순(1999). 복식유물의 연구에 있어서 분광화학 분석의 활용. 복식 49호.
- 오세탁(1997).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문화재 제30호.
- 유희경·김문자(1999).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 윤은재(1994). 해외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연구 I. 복식 23호.
- 이구열(1996). 한국 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 이순애·백영자(1996). 한국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승진(1990).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재 행정의 개선방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장철수(1995). 무형 및 민속문화재 연구의 회고와 전망. 문화재 제28호.
- 정진봉(1995). 한국 박물관의 실태와 성격에 관한 분석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최계원(1992). 박물관학. 향토문화진흥원출판부.
- 최덕향(1993).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 제26호.
- 한국문화예술킨흥원(1992). 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리기능 강화 방안 연구.
- 한글학회(1995). 우리말 큰사전.
- 호남문화재연구원(1999).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Daifuku, H. (1968).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property. In H. Daifuku (Ed.). *The conservation of culture proper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ropical conditions* (pp. 19-26). Paris-Unesco.
- Lasko, P., & Lodewijks, J. (1982). Curator and scientist: *Toward unity of aim. Museum*, 34(1).
- 문화재 관리청 : <http://www.ocp.go.kr>
- 국립전주박물관 : <http://www.museum.go.kr>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 <http://iksan.woorizip.com>
- 군산대학교박물관 : <http://san.kunsan.ac.kr/~museum/main.html>
- 원광대학교박물관 : <http://museum.wonkwang.ac.kr>
- 전북대학교박물관 : <http://www.chonbuk.ac.kr/korean/department/institute/institute.html>
- 전주대학교박물관 : http://www.jeonju.ac.kr/old_group/museum
- 국립광주박물관 : <http://namu.museum.go.kr/~kwangju>
- 광주민속박물관 : <http://www.kwangjufolk.go.kr>
- 전남대학교박물관 : <http://altair.chonnam.ac.kr/~museum/main.htm>
- 광주교육대학박물관 : <http://www.kwangju-e.ac.kr>